

#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속도

## 순창군-전북개발공사,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의 대표 공약사업인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순창군이 지난 28일 군청 2층 영성회의실에서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은퇴자 등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택지 개발, 택지 분양, 기반시설 설치 등 전원마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

기로 협약했다. 앞서, 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원마을 TF팀을 구성해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448개소의 후보지를 공동으로 현장 실사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우수한 두 곳(순창읍 백산리 50호, 구림면 운북리 60호)을 선정했다. 이 두 곳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투자심사와 이사회 승인을 마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 이후 전북개발공사는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2월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은 공공기관 주도의 전원마을 조성 외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한 전원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사례로 금과 방축마을 인근 46세대 규모의 덕진빌리지 전원마을이 첫 민간투자 프로젝트로 진행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히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인구 유입을 위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난 28일 군청 2층 영성회의실에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남원시, 2024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호평'

## 12월말까지 서비스 신청

남원시가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을 추진하여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소방·전기·행정분야 은퇴자나 정리수납 자격을 갖춘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가스·전기·화재·낙상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가정내 안전점검, 수도꼭지·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수선, 침실·안방의 침구나 옷장 정리, 냉장고 속 식자재 정리 등 정리수납 서비스 등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현재까지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670여 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정리수납 서비스는 거동불편으로 집 정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에 만족



남원시가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높아 서비스 요청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마다 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간단한 점검과 유지관리 노하우 안내, 독거노인 상담, 찾아가는 불편사항 소통창구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사업이 종료되는 12월말

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관내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생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리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주민복지 유관 기관단체장들과 군의 복지 성과 공유 및 주민의 복지 욕구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민복지·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 임실군, 복지 성과 공유·복지증진 정책발굴 등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임실군이 주민복지 강화와 노인일자리 활성화 등 군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주민복지 유관 기관단체장들과 군의 복지 성과 공유 및 주민의 복지 욕구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노인복지분야 3명, 장애인복지 2명, 지역복지 2명, 자원봉사단체 1명 등 8명의 시설단체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군 복지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 후 각 분야별 주요 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실제 임실군의 맞춤형 복지정책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역대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7개 분야에서 무려 22개

의 상을 받은 것. 특히 2023년 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노인일자리 공익형 최우수기관으로 임실시니어클럽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임실군장애인연합회가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이비용료 지원 등 체계하는 복지증진에 힘쓴 점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주민복지 증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된 논의 내용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구역 지정, 지방보조금 삭감에 따른 장애인복지 위축 우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등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산모 대상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에서는 임신부 및 출산 2년 이내 육아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맘(Mam)이 든든' 프로그램을 7월 3일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해 임신부 및 출산 2년 이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야기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전·후 정신건강 검사, 자살행동·스트레스 척도 검사,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회기별 프로그램, 정신건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발굴된 우울 고위험군 임신부에 게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무료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현대사회의 우울증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지역 내 시설 모니터링 실시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최근 군청 2층 영성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분기 회의 및 지역 내 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시설 현황 모니터링에 앞서 시설 현황 청취 및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후 군민참여단은 3개 조로 나뉘어 순창읍 내에 위치한 아이랜드, 영화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돌아보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체크리스트에 따라 접근성, 안전성, 출입구, 공간구조, 화장실 등의 성차별적 요소 및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적으로 점검했다. 점검한 내용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순창군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민복지과 김미경 과장은 "성평등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100세 어르신에 축하 물품 전달

남원시가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 사업으로,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존제가 삶의 귀감이 됨에 이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기획되었다. 지급 대상은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지급 물품은 이불, 건강생활용품 11종(안마기, 보행기, 족욕기, 성인용 기저귀 외 7종), 방짜유기세트, 두꺼운 요로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물품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50만원에 한하여 1~2가지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

다. 신청 방법은 10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달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및 자녀의 위임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가 큰 장수비결이 '웃음'이다. 장수 축하 물품을 받고 사용하실 때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